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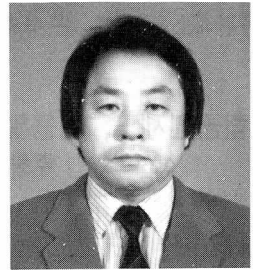
딱새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Phoenicurus a. aureus*

英名 Daurian Redstart



딱새는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에서 흔히 보는 낮은 새이다.

주로 단속 생활을 하고 통상 「삐-」 「삐-」 하는 다소 슬픈 곡조의 소리를 내며 집안의 울타리, 시내의 공원, 교정, 산촌마을등지의 인가와 인연한 곳에서 사계절을 사는 텃새의 한종이다.

움직일때마다 머리를 들었다 숙였다 하고 꼬리를 상하로 흔들며 「딱」 「딱」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름도 딱새라 부르는데 짧은 거리를 부지런히 다니는 습관이 있다.

번식기가 다가오는 4월이 되면 솃깃을 인가 근처의 나무 꼭대기에 앉아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감미로운 노래는 들을만 하다.

이때 쫓이면 암컷은 멀리 않은 곳에서 솃깃 주변을 맴돌며 사랑의 포옹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이 집을 짓는 곳은 형태가 다양하나 결코 인가에서 멀리가서 짓지는 않는다.

사찰근처에서는 현관 뒷쪽에다 주로 짓고 명석말이의 구멍이나 벽틈에 짓기도 하고 때로는 지붕의 처마밑 구조물 턱에도 짓고 인공번식상자에도 짓는다.

둥지는 나무가지를 쌓아 기초공사를 하고 풀뿌리

로 형틀을 잡은후 산좌에는 짐승털을 깔아 아늑한 둥지를 만드는데 모두 밥그릇형이다.

돋보이는 지혜로는 군데 군데 이끼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눈에 잘 띄이지 않게 치장하는 습기를 가지고 있다.

식성은 곤충이 서식하는 계절에는 갖가지 곤충을 주식으로 하고 간간이 잘 익은 산열매를 채식하기도 하며 겨울철에는 식물의 종자를 먹는다.

그래서 텃새이지만 동절기에는 인가근처나 야산을 배회하고 하절기 7월 번식기를 지나면 산림지대에서 지낸다.

춘락을 지날때 으레껏 들려오던 딱새의 소리가 최근들어 줄어든 것은 농약이나 환경파괴, 또 동네마다 몇자루씩 되는 공기총의 표적으로 일년에 4마리 정도 불어나는 딱새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싫어 외진곳에 살기 좋아하는 야생조류는 해마다 숫자의 증감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생활언저리에서 지내는 들새들이 줄고 있다는 현실과는 비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삭막해진 자연계는 인간의 생활과 인성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음미해야 할것이다.